



고려시대 진언기와 사례 검토

Review on Mantra Roof-Tile in
Goryeo Dynasty

차순철

서라벌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I. 머리말

II. 경주지역 출토 '음소재진복와' 명문기와 검토

III. 고려시대 소재도량과 진언

IV. 고려시대 진언기와의 명문 검토

V. 맷음말

국문 요약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명문기와 중 ‘옴소재진복와(唵消災進福瓦)’는 경주 월성 부근인 인왕동과 경주읍성 부근인 성동동 그리고 황성동 호원사지와 동천동 일대, 현곡면 나원리사지와 안강읍 갑산사지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과거 이 명문기와는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알려졌지만 발굴조사를 통해서 고려시대 중기에 사찰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소개된 자료와 최근 출토된 명문과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과거에 판독된 ‘소재진복’의 앞쪽과 뒤쪽에서 각각 새로운 글자가 1자씩 추가로 확인되어서 전체 내용은 ‘옴 소재진복와’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불교진언으로 ‘옴(唵)’자를 첫 머리에 둔 “재앙이 소멸되고 복이 오는 기와”로 읽을 수 있다. 이 기와가 만들어진 시기는 고려시대 중기인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로 추정되며, 이 시기 유행하던 불교의식인 <소재도량(消災道場)>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명문기와는 불교진언을 기와에 새김으로써 그 부처의 힘으로 재앙을 막고자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는 경주 인왕동유적 2방 6호 건물지, 성동동 273-1번지 유적 그리고 시내 주변에 위치한 안강 갑산사 - 현곡면 나원리사지 - 황성동 호원사 등에서 사용한 모습이 확인되므로 경주 시내와 주변지역에 위치한 사찰들의 연결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유적에서 출토된 명문과 중 진언기와를 살펴본 결과 경주지역 외에도 지방의 여러 사찰에서 출토된 사례가 확인되므로 고려시대에는 소재도량을 통해서 재해를 막고자 기원하면서 함께 진언기와를 사용함으로써 그 공력을 빌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고려시대, 명문와, 진언, 사찰, ‘옴소재진복와(唵消災進福瓦:재앙이 소멸되고 복이 오기를 바라는 기와)’

I . 머리말

과거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명문기와로 분류된 사례¹⁾ 중 고려시대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그 제작시기가 새롭게 밝혀지면서, 당시 제작된 명문기와의 성격과 제작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명문기와는 그 제작시기, 제작자, 사용목적, 사용처 등을 표기한 것으로 당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사료이다. 최근 발굴조사 결과 과거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추정되던 명문기와들이 고려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면서 그 사용시기가 고려시대임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이는 과거 경주에서 이루어진 신라기와와 고려기와의 구별과정에서 경주를 신라왕경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유환성 2010: 132) 따라서 이를 명문기와들에 대해서는 사용시기와 목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분석하려는 대상은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명문기와로 관련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명문을 ‘옴소재진복와(唵消災進福瓦)’로 밝혀낼 수 있었다. 이 명문기와는 과거 전체 내용의 일부만 소개된 관계²⁾로 인해서, ‘消災進福’ 즉 “재앙이 소멸되고 복이 오기를 바라는” 기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최근 경주지역 내 소규모 발굴조사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유적에서 출토된 명문기와와 과거 보고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해석처럼 단순히 복을 기원하는 내용보다는 하나의 진언(眞言, mantra)으로 판단되었으며, ‘소재진복’ 네 글자에서 ‘옴소재진복’ 여섯 글자로 전체 명문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시기 제작된 명문기와 중 이러한 진언이 표기된 사례가 추가로 존재한 모습에서 이 명문기와를 〈진언기와[眞言瓦]〉로 부르고 그 성격을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고려시대에 유행한 불교의 진언신앙과 불교의례와의 관련성 그리고 ‘옴소재진복’ 명문기와와 같이 기와에 진언을 표기한 사례와 그 사용처, 목적 등을 검토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불교신앙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밝히고자 한다.

1)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발간한 『신라와전』에 수록된 자료 중 일부 명문와에 대해서는 그 제작시기를 고려시대로 보는 의견이 있다.

2)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발간한 『신라와전』에는 나원리사지에서 출토된 ‘…災進…’ 명문기와가 보고되었다(국립경주박물관 2000: 375, No.1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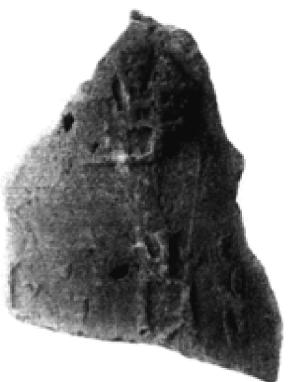
Ⅱ. 경주지역 출토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 검토

현재까지 경주시내 유적에서 출토된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는 모두 15점으로 대부분 건물지 조사 중 발견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경주시 외곽에 위치한 현곡면 나원리사지에서 수습된 ‘消災進福’ 명문기와는 일반적인 연호나 사찰 이름이 새겨진 것과 달리 불교 진언이 확인된 점에서 주목되어왔다. 이 명문기와는 발굴자료 외에도 지표에서 수습된 뒤 민간 수장품으로 다수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에 대해서 그 내용이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일부 연구논문이나 자료집 등에 소개된 내용을 통해서 경주 시내 여러 유적에서 동 명문기와가 출토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필자가 확인된 출토사례와 일부 개인 소장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장처 불명

(1) 월성군 현곡면 출토품

일제강점기에 채집되어 일본 동경대학 공과대학에 소장된 것으로 보고된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는 경주군 현곡면에서 수집된 것으로 ‘唵消…’가 확인된다.(朝鮮總督府 1917: No.2728) 함께 수록된 유물 중 ‘壬寅年造’ 명문기와(朝鮮總督府 1917 : No.2726)가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 명문기와들은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面谷見



面谷見

[그림 1] 경주군 현곡면 출토품(朝鮮總督府 1917)

이 명문기와는 ‘消’자 위에 분명하게 좌서로 한 글자가 더 위치한 모습이다. 이 첫 글자의 형태를 살펴보면 좌서로 〈电〉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상부 획수를 추정할 수 있다면 그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경주 출토품



[그림 2] 소장처불명(김동현 외 1976)

경주 일대 출토 재명와류로 보고된 ‘옴 소재진복와’ 명문기와는 암기와로 등에 좌서로 ‘唵消災進…’을 4회 연속으로 타날 했다.(김동현 외 1976: 27, No.46) 앞서 보고된 명문기와와 달리 ‘消’자 위에 한 글자가 더 확인되는데, 첫 글자의 획수를 살펴보면 좌서로 상단에 ‘大’자의 아래쪽 부분인 ‘人’자획이 보이며, 중간에는 ‘田’자와 비슷한 모습이 있고, 그 아래로는 ‘田’자와 연결된 모습으로 ‘了’ 또는 ‘丨’획이 확인된다. 이렇게 결합해서 한 글자를 표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서 현곡면 나

원리사지 출토품으로 추정되는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의 첫 글자인 〈电〉의 좌서와 같은 모습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연결하여 복원하면 ‘庵’자와 유사한 모습이지만 ‘庵’자 보다는 불교 경전암송 시 진언의 첫 머리에 나오는 ‘唵’자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이 글자를 ‘옴(唵)’으로 보는 이유는 첫 머리에 나오는 글자인 점과 명문와의 전체 글자가 여섯 글자로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고려시대 당시 유행하던 밀교진언인 ‘六子大明王眞言’ 즉 ‘옴마니반메훔(唵麼撋鉢訥銘吽)’과 같이 글자 수를 여섯 글자로 적은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2. 경주 나원리사지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676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주 나원리사지는 창건시기를 알 수 없다. 다만 사명은 난원사(蘭原寺)로 전하며, 신라 현덕왕대 대각사가 대각료(大

覺寮)를 짓고 국운창달을 기원하던 곳으로 ‘보리림(菩提林)’이 있었다고 한다.(김기문 2006: 685) 현재 사역 안에서 출토된 신라 문무왕 19년(679)에 제작된 ‘儀鳳四年皆土’ 명문기와와 동시기의 무악식당초문암막새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창건시기는 이즈음을 전후한다고 추정된다.(박홍국 1998a: 103) 하지만 오충석탑에 대한 해체수리작업 당시 출토된 사리구에 대한 분석결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함께 출토된 점으로 볼 때, 중국에서 이 경전이 번역된 704년보다 이후에 석탑이 건립되었음이 밝혀졌다.(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146).

나원리사지 사역 안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는 ‘儀鳳四年皆土’ 외에도 ‘壬寅年造’,³⁾ ‘國善’(김동현 외 1976: 14), ‘…災進…’ 등이 보고되었다. 이들 명문기와는 오충석탑 주변이 아니라 동쪽 경사면의 경작지에서 수습되는 점으로 보아 사역 내 건물들은 석탑 아래쪽에 위치할 것이다.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는 현재 암키와 1점으로 등에 좌서로 ‘…災進…’ 두 글자만 확인된다. 크기는 잔존길이 10.3cm, 잔존너비 9.3cm, 두께 1.8cm이다.



[그림 3] 경주 나원리사지 출토품
(국립경주박물관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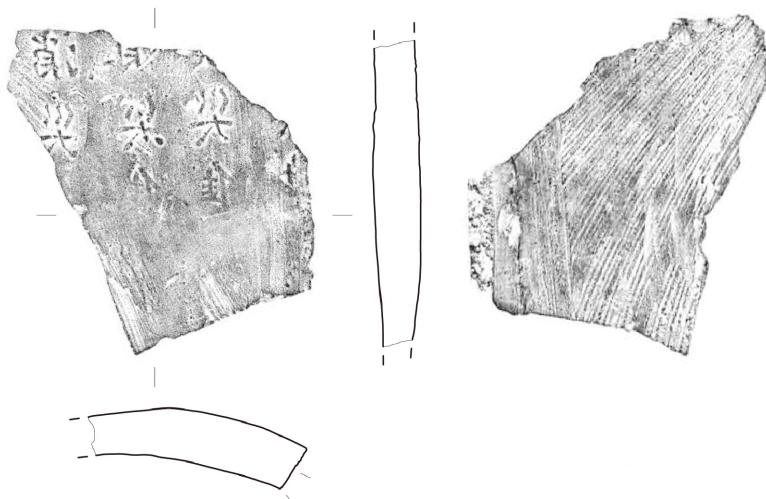
3. 경주 갑산사지

갑산사지는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에 위치하며 구릉을 이용하여 사찰 건물을 배치한 모습이다. 지표조사와 공장신축에 따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5). 조사결과 축대, 건물지, 기단석렬, 담장, 배수로, 추정 계단지 등이 확인되었다. 구릉 정상부 사방을 감싸듯이 평면형태 ‘ㅁ’자형의 축대가 확인되며 계단으로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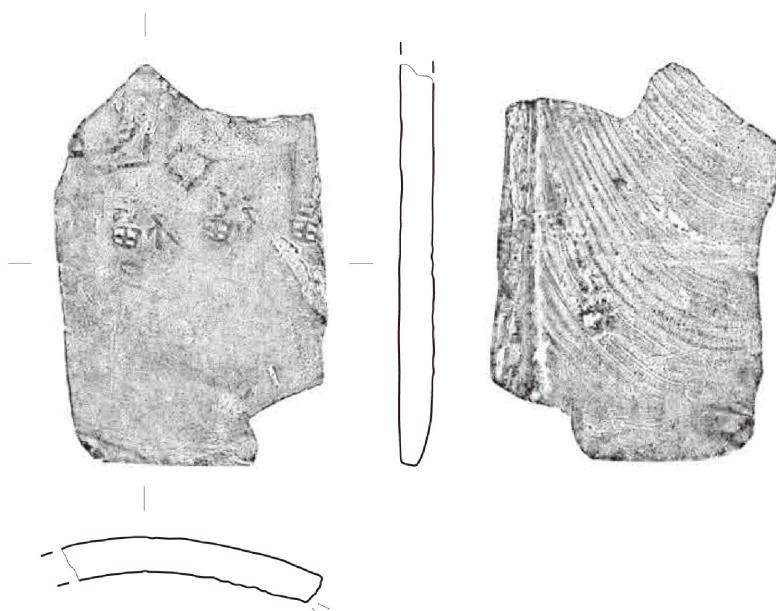
출토유물 중 명문기와는 ‘甲山寺’, ‘岬山寺瓦’, ‘岬山寺屬造’, ‘太康六年(1080)庚申八月日’, ‘…大櫓院…’ 등이 출토되었으며,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는 1호 축대 서쪽

3) ‘임인년조’명 명문기와의 임인년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고려 충렬왕 5년(1279)이전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어물문기와로 중간에 방곽을 만들고 우서로 좌측에 王寅, 우측에 年造 명문을 배치했다.(진홍섭 1975: 117~118; 박홍국 1980: 109).

에서 1점, 상부 수습유물 1점이 확인된다. 1호 축대 서쪽 출토품은 회백색 암키와로 등에 좌서로 ‘…消災進…’을 연속하여 4회 타날을 했고 내면에는 사절흔적이 있다. 크기는 잔존길이 23.6cm, 잔존너비 19.6cm, 두께 3.1cm이다.



[그림 4] 경주 갑산사지 1호 축대 출토품(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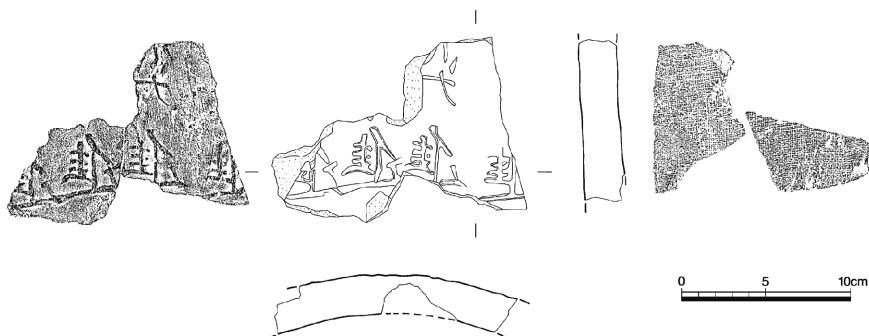
[그림 5] 경주 갑산사지 상부 수습유물(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5)

상부 수습유물은 갈희색 암기와로 등에 좌서로 ‘…進福…’을 연속하여 4회 타날하고 하단부는 물손질로 정면을 했다. 내면에는 사절흔적과 눈테⁴⁾[와통고정틀띠]가 있고 단부 안쪽은 경사지게 조정을 했다. 크기는 잔존길이 22.8cm, 잔존너비 15.3cm, 두께 0.9~1.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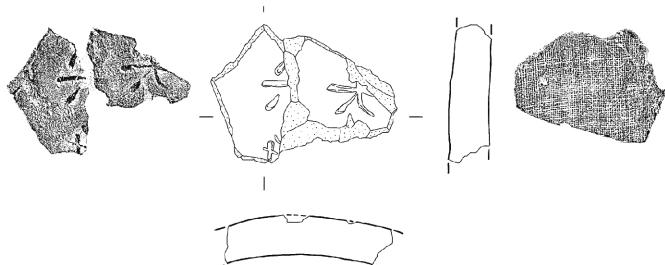
3. 경주 동천동 669-2번지 유적

경주 동천동 669-2번지 유적은 황성공원 동쪽에 위치하며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발굴조사가 되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 탑스리빙월드(주) 2010). 조사결과 통일 신라시대의 신라왕경 방리가 확인되었고, 다수의 건물지와 담장, 배수로, 도로, 석조 유구, 우물, 청동공방 등이 조사되었다.

유적에서는 ‘在城’, ‘南宮之印’, ‘莫’, ‘吞’, ‘卍’ 등의 명문와가 출토되었으며, ‘옴소



[그림 6] 경주 동천동 669-2번지 유적 8호 건물지 출토품 1(한국문화재보호재단 · 탑스리빙월드(주) 2010)



[그림 7] 경주 동천동 669-2번지 유적 8호 건물지 출토품 2(한국문화재보호재단 · 탑스리빙월드(주) 2010)

4) 눈테흔적은 와통의 형태를 잡아주기 위한 금속띠이므로 와통고정틀띠라고 부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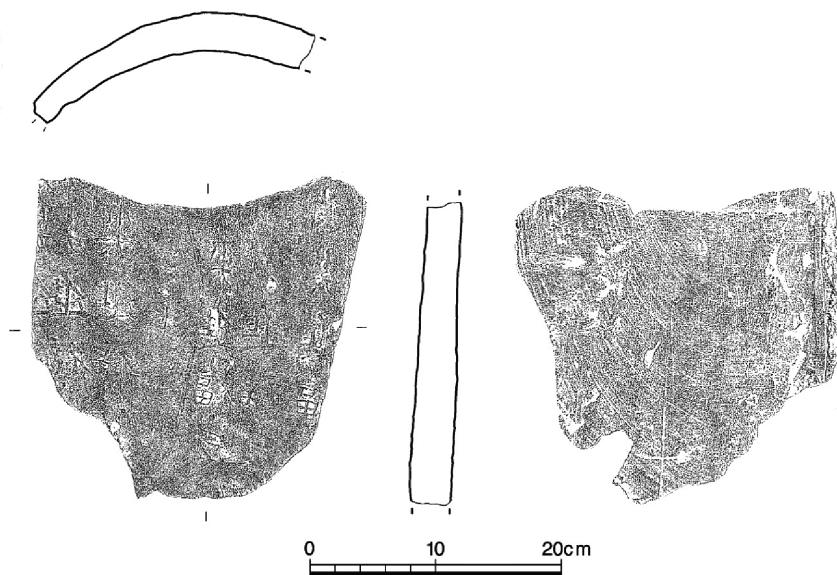
재진복와’ 명문기와는 8호 건물지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암회색 암기와로 등에 좌서로 ‘…災進…’을 연속하여 타날했다. 기와 내면에는 사절흔적이 있다. 크기는 잔존길이 9.4cm, 잔존너비 14.1cm, 두께 2.3cm(133), 잔존길이 8.0cm, 잔존너비 9.8cm, 두께 2.3cm(135)이다.

4. 경주 황성동 402-9번지 유적

경주 황성동 402-9번지 유적은 『경주유적지도』 내 호원사지의 남편 경계에 해당된다. 발굴조사 결과 고려~조선시대 원형석축유구, 부석, 집석, 폐와무지, 시기미상의 석렬 등이 확인되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유적에서는 일晦문수막새와 녹청자 병, 상감청자 별, 팔각접시 등이 공반되었다.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는 집석유구와 폐와무지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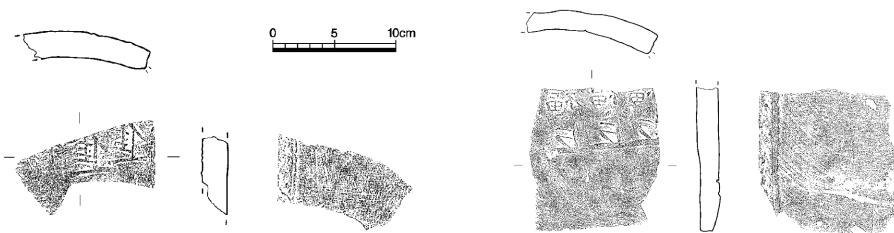
원형석축유구 출토품(20)은 명갈색 암기와로 등에 좌서로 ‘…消災進福○(瓦)’ 다섯 글자를 타날한 후 물손질로 마지막 글자를 지운 모습이다. 배면에는 사절흔적, 점토합흔이 있다. 이 명문기와는 일반적으로 보고된 ‘소재진복’ 글자의 아래쪽에 새로운 글자 한 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이다. 마지막 글자는



[그림 8] 경주 황성동 402-9번지 유적 출토품 1(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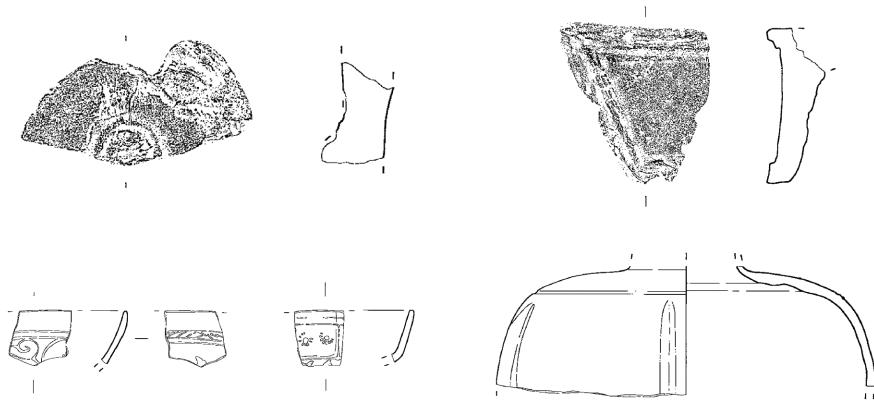
본 유적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를 통해서 ‘瓦’자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명문을 복원하면 ‘唵消災進福瓦’ 6자임을 알 수 있다. 크기는 잔존길이 25.2cm, 잔존너비 21.4cm, 두께 2.3cm이다.

집석유구 출토품(41)은 회색 수키와로 등에 ‘…進…’자를 연속해서 타날을 했다. 크기는 잔존길이 8.9cm, 잔존너비 11.5cm, 두께 2.1cm이다. 폐와무지 출토품(59)은 명갈색 암키와로 등에 ‘…福瓦’를 연속하여 3회 타날을 했다. 내면에는 사절흔적이 있다. 크기는 잔존길이 16.8cm, 잔존너비 14.6cm, 두께 1.4~2.1cm이다.



[그림 9] 경주 황성동 402-9번지 유적 출토품 2, 3(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유적의 시기는 공반된 일휘문수막새와 상감청자, 팔각접시, 도기 병 등으로 볼 때, 고려시대 중기인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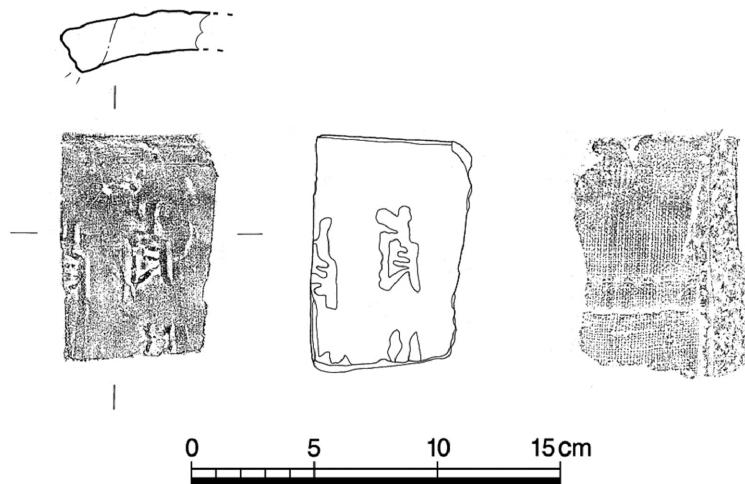


[그림 10] 경주 황성동 402-9번지 유적 출토품(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5. 경주 성동동 273-1번지 유적

경주 성동동 273-1번지 일대 유적은 경주읍성 동문지 주변지역으로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 수혈, 건물지, 수혈, 주혈, 우물, 도랑 등이 확인되었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7).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는 22호 수혈에서 출토되었다. 명청회색 암키와로 등에는 좌서로 ‘消(災)…’를 타날했다. 내면에는 포목흔적과 함께 너비 1.3cm의 눈테흔적이 있다. 크기는 잔존길이 13.5cm, 잔존너비 10.1cm, 두께 2.1cm이다.



[그림 11] 경주 성동동 273-1번지 유적 출토품(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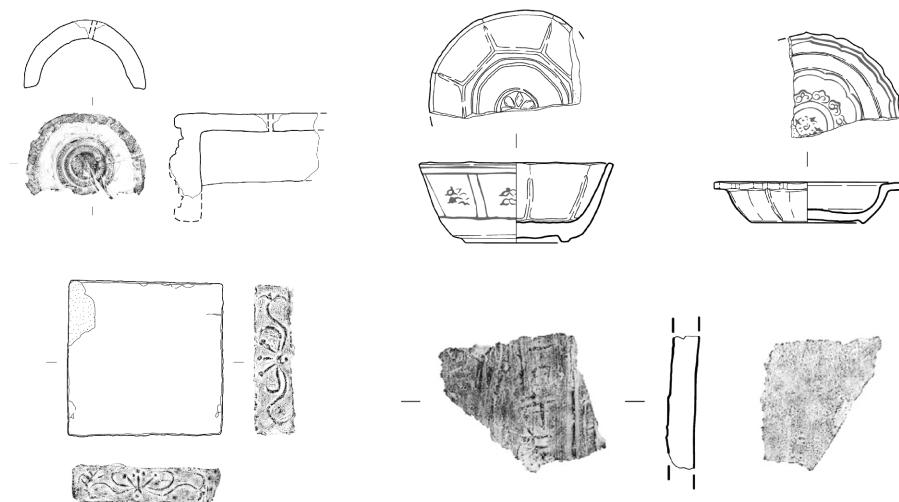
6.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은 국립경주박물관 남편에 수장고인 <신라천년보고>를 건설하기 위해 발굴조사가 되었다(국립경주박물관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조사 결과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신라왕경 내 방리구조가 확인되었으며, 고려시대의 2방 6호 건물지에서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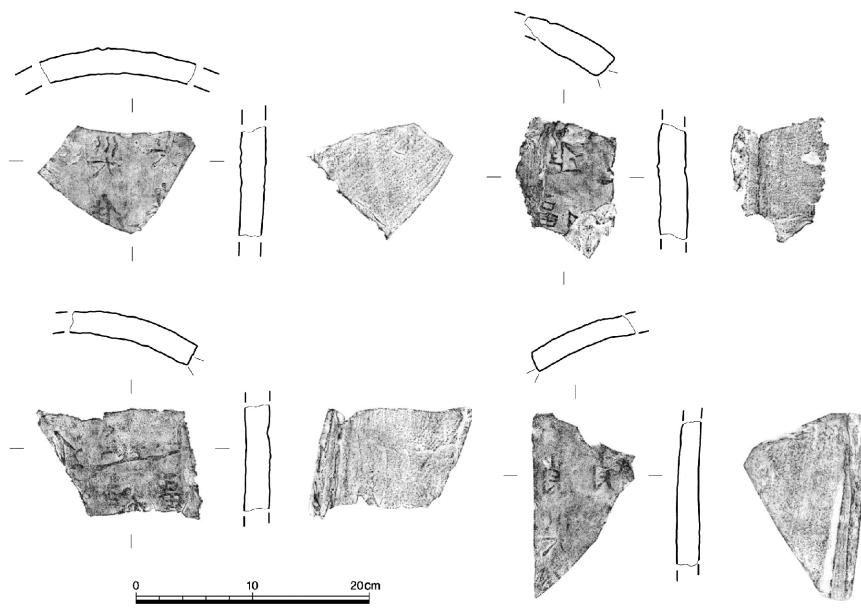
2방 6호 건물지는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하며 내부에는 3호 담장이 있고 건물지의 남쪽과 북쪽의 끝은 각각 5호 건물지 기단과 1호 배수로이며, 동쪽에서 석렬 일부가 확인된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며 내부에는 많은 기와를 매립하여 기

초로 사용했다. 건물의 규모는 길이 14m, 넓이 11m이다.

출토유물 중 상감청자 팔각접시, 청자병, 청자원양형연적편 등과 ‘(天)王寺右’, ‘右’, ‘卍’, ‘ヲ’, ‘竹官(管?)’, ‘○寺○’ 등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또한 2방 건물지



[그림 12]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 2방 6호 건물지 출토품(국립경주박물관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그림 13]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 출토품(국립경주박물관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내에서 귀목문수막새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유적의 시기는 고려시대 중기(12~13세기경)로 보이며 성격은 사찰로 추정된다.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는 모두 4점이다. 208은 회백색 암키와로 등에 좌서로 ‘…消災進…’이 있고 배면에 눈테흔적이 있다, 209는 회색 암키와로 등에 좌서로 ‘…災進…’이 있고 배면에 사절흔적이 있다. 201은 명적갈색 암키와로 등에 좌서로 ‘…進福…’이 있고 배면에 사절흔적이 있다. 211은 회백색 암키와로 등에 ‘…災進…’을 연속하여 타날했다. 기와 내면에는 사절흔적이 있다. 크기는 (208)잔존길이 12.4cm, 잔존너비 8.9cm, 두께 1.8cm, (209)잔존길이 9.4cm, 잔존너비 13.4cm, 두께 2.1cm,



[그림 14]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 복원결합도

(210) 잔존길이 8.9cm, 잔존너비 10.9cm, 두께 2.0cm, (209) 잔존길이 9.9cm, 잔존너비 7.7cm, 두께 2.3cm 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의 각 부분을 결합하면 장판타날기 와로 종방향으로 좌서 명문을 타날한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는 경주지역 내 6개 유적과 출토지 불명사례 1건 등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명문기와의 내용을 살펴보면 좌서로 새긴 6자를 기와의 하단부터 상단까지 장판타날을 사용하여 제작했다.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범자진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통일신라시대의 사례로는 경주시 덕동 동대봉산에 위치한 덕동사지 전탑 출토 범자문전⁵⁾과 동궁과 월지유적 서편⁶⁾과 동부사적지대 내 발천유적 호안석축⁷⁾에서 ‘옴’ 연화문수막새가 알려져 있으 며, 전탑 벽면에 범자로 육자진언을 표기한 사례는 주목된다.



[그림 15] 경주 덕동사지 출토 범자문전(박홍국 1998b: 76)

5) 덕동사지 전탑 출토품은 『신라의 기와』에 수록된 경주지방 출토품과 동일한 것이다(김동현 외 1976: 300, No.1402).

6) 필자가 위덕대학교 박물관 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지표 채집한 유물로 현재 위덕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출토지점은 동궁과 월지유적 서쪽 구릉부로 당시 지표조사 당시 ‘옴’명 연화문수막새를 수습하였다. 이 유물 은 『신라의 기와』에 수록된 출토지 미상 유물과 동일한 것이다(김동현 외 1976: 27, No.51.).

7) 경주 동부사적지대 석교지 복원공사부지 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시 밀천의 북편 호안 석축 안쪽 퇴적층에서 〈옴〉명 연화문수막새의 범자문이 표현된 지방부분이 출토되었다(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19: 55, No.40.).

Ⅲ. 고려시대 소재도량과 진언

〈옴(唵, om, 한역, ‘唵’)〉은 불교에서 의식을 행하거나 수행할 때에 염송하는 진언(眞言)의 최초에 오는 소리로 귀명(歸命), 비로자나불 등의 신성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불교에서 진언을 염송할 때 주로 최초에 오는 소리는 ‘옴’이며 가장 끝에 ‘사바하(莎訶, svaha)’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16] 육자대명왕진언(실담법자)

밀교 진언집 중 조선 명종 15년(1560) 평안도 평원의 숙천에서 간행된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諺解』와 대한제국 순종 2년(1908)에 간행된 『六字大明王陀羅尼經』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의 각 글자를 오방과 오불 및 금강보살에 배대하면서 ‘옴’자를 중앙의 비로자나불에 두고 있다. 조선시대에 인출된 진언집류에는 보통 여러 가지 진언을 한글, 한문, 범자(梵字)의 순서로 병기하고 있다. 이들 진언에서 첫 글자는 대부분 ‘옴’으로 시작하며, 진언의 중심이 되는 비로자나불을 상징하고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이외에도 고려, 조선시대에 제작된 육자진언이 새겨진 암, 수막새와 평기와, 건물 내 단청이나 벽화, 범종장식 등에 사용되었다(대한불교진각종 밀교문화총람사업단 2018).

진언은 밀교에서 여러 불·보살 또는 제천(諸天)에 호소해서 기도하거나 의식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이다(한국사전연구사 1998). 한역된 불경 안에서 이러한 진언은 산스크리스트어로 읽혀지고 있으며, 실담법자로 표기가 되어 있다. 한편 밀교에서 행해진 진언 등을 경면주사(鏡面朱砂)로 쓴 부적은 민간에서 질병을 치유하거나 재난을 몰아내는데 사용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에는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도화녀비형랑」조에서는 진지왕 혼백과 도화녀 사이에서 태어난 비형(鼻荊)과 관련하여 귀신을 쫓는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성스런 임금의 혼이 아들을 낳았으니 여기 가 비형랑의 집이다. 날고뛰는 잡귀의 무리들은 이곳에 머물지 말라.”라는 내용이 전

하고 있다 또한 「처용랑 망해사」조에서는 처용이 역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전하며, 「아도기라」조에서는 목호자가 향을 피우고 소원을 표하자 왕녀의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밀본최사」조에서는 밀본법사가 선덕왕의 병을 고치는데 『약사경』을 읽고, 육환장으로 늙은 여우와 법척을 찌르는 모습과 승상 김양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법류사의 승려와 밀본법사가 경전을 펴서 읽으면서 귀신을 쫓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혜통항룡」조에서는 혜종이 당 고종의 공주의 병을 주문을 외워서 교룡(蛟龍)을 쫓아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기록으로 볼 때, 적어도 통일신라시대에는 중국 밀교의 영향을 받아서 질병을 퇴치하는데 불경을 읽거나 육환장과 같은 법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밀본법사는 사천왕사에서 문두루법을 행하고 신라를 불법으로 지키고자 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숭상하면서 많은 법회가 개최되었다. 이중 주목되는 불교의례는 고려시대에 왕실주관으로 열린 <소재도량(消災道場)>을 들 수 있다. 소재도량은 일반적인 기원법회인 기우도량, 문두루도량 등이 재난을 당하여, 그 재난을 물리칠 목적으로 열린 법회인 데 반하여 소재도량은 재난을 당하여 열리기도 하였지만 예방법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많이 열렸다는 특징을 가진다(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소재도량은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를 대상으로 하는 불교의례로 고려시대 비정 기적 불교의례 가운데 가장 높은 개설 빈도를 자랑한다. 소의경전은 『消災吉祥經』 또는 『消除災難經』⁸⁾이며, 이외에도 『大妙金剛大甘露軍擎利焰鬢熾盛佛頂經』, 『大聖妙吉祥菩薩說除災教令法輪』, 『佛說聖瞿母陀羅尼經』, 『佛說如意摩尼陀羅尼經』 등이 알려져 있다(조성금 2016: 183~184). 소재도량의 개설 목적은 천변(天變)으로 예견되는 재앙을 막기 위함이었다(김수연 2013). 『고려사』에서 당시 왕실에서 연 소재도량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147건이 확인되며⁹⁾ 명종 때 12건, 고종 때 43건, 원종 때 24건, 충렬왕 때 16건 등이 확인된다.

소재도량이 열린 장소를 살펴보면 궁전 내 강안전(康安殿), 건덕전(乾德殿), 내전(內殿), 대관전(大觀殿), 대전(大殿), 명인전(明仁殿), 문덕전(文德殿), 상춘정(賞春亭), 서연청(書筵廳), 선경전(宣慶殿), 수강궁(壽康宮), 수문전(脩文殿), 수춘궁(壽春

8) 경전의 원명은 『佛說大威德金輪佛頂熾盛光如來消除一切災難陀羅尼經』이다.

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KOREA/item/evel.do?itemId=kr&types=r>). 『고려사』(202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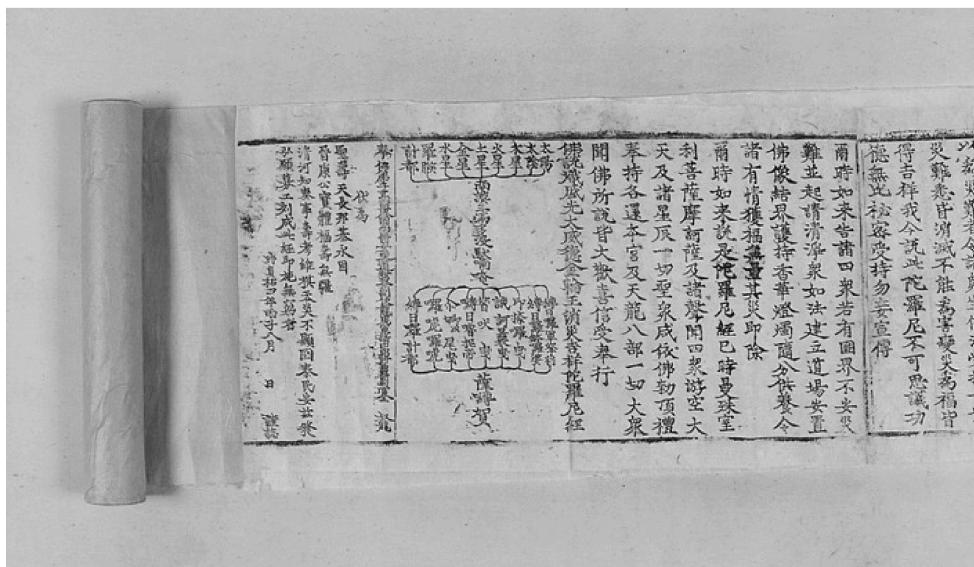
宮), 숭문전(崇文殿), 신궁(新宮), 연경궁(延慶宮), 외원(外院), 외제석원(外帝釋院), 이현궁(梨峴宮), 장락전(長樂殿), 천복전(天福殿), 회경전(會慶展) 등의 여러 전각들과 고봉사(高峯寺), 광암사(光岩寺), 극락사(極樂寺), 봉선사(奉先寺), 왕륜사(王輪寺), 외원사(外院寺), 일월사(日月寺), 총지사(摠持寺) 등의 사찰 그리고 지역으로는 왕도인 개성과 청주 등이 확인된다.

소재도량에서는 천재지변(천둥, 번개, 안개, 바람, 무지개 등)과 성변(星變)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한편으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으며, 소재도량을 지낸 후 다른 장소에서 다시 초제(醮祭)를 지내기도 했다. 한편 소재도량에서는 불정소재도량(佛頂消災道場)을 열고, 궁궐 건물 안에서 『인왕경(仁王經)』을 강론하기도 했다. 소재도량의 기간은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21일 [三七日] 등 다양하며 기본적으로는 7일, 21일이 최대로 보인다.¹⁰⁾ 법회 기간 중에는 매일 진언 다라니 108편, 또는 1,000편을 염송한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죄가 가벼운 죄수는 방면(放免)하였으며, 밀린 조세를 탕감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백성의 어려움을 풀어줌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소재도량의 소의경전은 『佛說熾盛光大威德消災吉祥陀羅尼經』(이하 『消災吉祥經』로 약칭)과 『佛說大威德金輪佛頂熾盛光如來消除一切災難陀羅尼經』(이하 『消除災難經』으로 약칭)으로 의식절차는 이 경전 내용을 읽는 독송으로 추정된다. 『소재길상경』은 당 불공(不空)이 번역한 경전으로, 하늘의 변이[星變]을 물리치기 위한 熾盛光大威德陀羅尼除災難法과 의례 방법을 설한 경전이다. 『소재재난경』은 역시 당대에 번역되었으나 역자는 알 수 없으며 『소재길상경』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다라니의 표현방식이 조금 다르며, 뒷부분에 九曜¹¹⁾眞言이 첨부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10) 『소재재난경』에서는 경전 내 수록된 다라니(진언)를 108번 또는 1천 번 반복하여 읽는데, 날짜는 1일, 2일, 3일 내지 7일로 정하고 있다.

11) 범어로 navagraha이다. 천문현상 가운데 주요한 것을 말한다. 태양을 비롯한 중요한 아홉 가지를 인격화한 것이다. 9요(曜)라고도 한다. 즉, ① 일요(日曜): Āditya. 태양·일정(日精)·일성(日星)이라고도 한다. ② 월요(月曜): Soma. ③ 화요(火曜): Aṅgāraka. ④ 수요(水曜): Budha ⑤ 목요(木曜): Br̥haspati ⑥ 금요(金曜): Śukra. ⑦ 토요(土曜): Śanaiścara. ⑧ 라후성(羅睺星): Rahu ⑨ 계도성(計都星): Ketu의 아홉이다. 일요는 태양(太陽)이며, 월요는 태음(太陰)이고, 화요는 형혹성(熒惑星)이며, 수요는 신성(辰星)이다. 목요는 세성(歲星)이고, 금요는 태백성(太白星)이며, 토요는 진성(鎮星)으로 이상의 일곱을 7요(曜)라 칭한다. 라후는 황변성(黃旛星)으로 식신(蝕神)이라고도 칭하는데, 해와 달이 겹치는 것을 식(蝕)이라 한다. 계도는 혜성(彗星)으로 표미성(豹尾星)이라고도 하며, 식신의 꼬리이다(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불설대위덕금륜불정치성광여래소재일체재난다라니경』<https://kabc.dongguk.edu>, 2021.8.6.).



[그림 17] 대구 동대사 소장『불설치성광대위덕소재길상다라니경』(문화재청)

한편 소재도량의 소의경전¹²⁾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례로는 현재 대구광역시유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된 대구 동대사 소장『消災吉祥經』을 들 수 있다. 이 경전은 고려 고종 3년(1216) 병자 8월에 상진안동도(尙晉安東道) 안찰부사(按察副使)인 김숙룡(金叔龍)이 국왕과 진강공(晉康公) 최충헌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발원하여 간행한 목판본으로, 간경시기가 13세기 초로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가 제작된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점에서 당시 소재도량이 폭넓게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고려시대에 소재도량은 100회 이상 개설된 의례로 모두 재난을 기양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의례개설 목적 면에서 보면, 밀교의례는 다른 의례들과 차별화되지 않으며, 이는 고려시대 밀교의례가 정치적 기제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다라니를 받들면 영험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낯선 다라니를 외우는 장엄한 밀교의례는 불보살의 위신력으로 재난이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고취시키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국가적 밀교의례로 개설되었다(김수연 2012: 219).

그러므로 고려시대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재도량의 모습은 경전에 나타난

12) 불공이 번역한『소재길상경』은 고려대장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을 소재도량의 소의경전에서 제외시키는 견해도 있다(김종명 2001: 82~83). 그러나 불공 역『소재길상경』은〈房山石經〉에 포함되어 있고, 〈방산석경〉 가운데 遼·金시대에 석각된 것은 요대장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비록 고려대장경에 입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대장경이 전래된 고려에서는『소재길상경』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소재도량의 소의경전으로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김수연 2013: 128 각주 60).

것처럼 천재지변과 별자리로 인해서 생긴 재난을 없애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도량은 당시 도성인 개성지역 외에도 지방에까지 파급되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며,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는 소재도량과 관련된 증거로 생각된다.

IV. 고려시대 진언기와의 명문 검토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는 현재까지 경주지역 안에서만 확인되며, 출토유적의 시기를 살펴보면 상감청자, 상감청자 팔각접시 등이 일晦문 암·수막새와 공반되는 점으로 볼 때, 고려시대 중기인 12세기 중엽~13세기 전반 사이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주지역과 국내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명문와 중 <진언>과 같은 명문이 확인된 사례를 살펴보면,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을 범어로 사용한 암·수막새와 평기와 그리고 한자 진언을 사용한 명문와로 구분할 수 있다.

1. 육자진언(범자)명 기와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을 범어로 사용한 암·수막새와 평기와들의 사용시기에 대해서 여러 논고가 발표되었다. 박은경은 이를 범자기와의 등장 배경을 공민왕대 원에서 들어온 후기 밀교가 성행하면서 수많은 밀교법회가 개최된 것과 관련지우고 있다(박은경 1988). 고정용은 노국공주의 사망과 함께 고려 공민왕 14년(1365)에 조성된 왕릉(정릉)과 재위 23년(1374) 9월에 공민왕이 승하한 후 조성된 현릉에서 범자문 암·수막새가 출토된 점을 근거로 14세기 3/4분기의 기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高正龍 1999: 75). 한편 일晦문에 육자진언범자가 새겨진 사례로는 개성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다 수가 확인되는데, 일晦문막새는 11세기 말~12세기 초에 출현한다고 추정되고 있다(박은경 1988: 169). 따라서 일晦문에 육자진언범자가 새겨진 사례는 이보다 늦은 시기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강화도 선원사지 출토 범자문 암·수막새의 사례로 볼 때, 고려 충렬왕 31년(1305) 경에 범자문 암막새가 처음 사용되며 그 마지막 사용시기는 조선 태조 7년(1398)에 선원사에 보관 중이던 대장경을 한양 지천사로 옮기 시점과 조선 세종 10년(1428)에 폐사된 점으로 볼 때, 범자

문 암·수막새의 사용시기는 14세기말로 이전으로 볼 수 있다(高正龍 1999). 따라서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을 범어로 사용한 암, 수막새와 평기와의 사용시기는 고려 말인 14세기 초에서 조선시대까지로 볼 수 있다(엄기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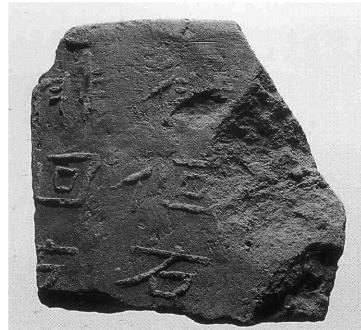
2. 진언기와(한자)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을 범어로 사용한 기와들과 달리 진언기와는 기와 등에 한자로 진언을 찍은 기와이다. 명문내용 중 진언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성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주 고선사지 출토 ‘徘徊右道’ 명문기와

경주시 암곡동에 위치한 고선사지는 신라 고승 원효와 관련된 사찰로 보문호 건설에 따라 수몰되었다. 조사결과 동쪽에 금당, 서쪽에 탑원을 둔 동서방향의 가람구조가 확인되었다(문화재관리국 경주사적관리사무소 1977).

이 기와는 물손질한 기와 등에 우서로 ‘徘徊右道’를 종방향으로 찍었으며, 최근 경주 황룡곡 묘 충사지에서 완형 기와가 채집되어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되었다. 명문 내용을 살펴보면 徘徊와 右道로 구분할 수 있는데, 徘徊는 “주변을 돌아다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右道의 의미를 살펴보면 『大方等大集經』권 제2에 “모든 중생들은 항상 左道(左道)를 행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그것을 보고는 곧 우도(右道)를 드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左道를 버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¹³⁾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바른 길로 들어가기 위해 수행을 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진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불교의 경배대상인 불상과 불탑을 ‘우요(右繞)¹⁴⁾’하는 의미로 오른쪽으로 3번 도는 ‘우요삼잡(右繞三匝)’의 예경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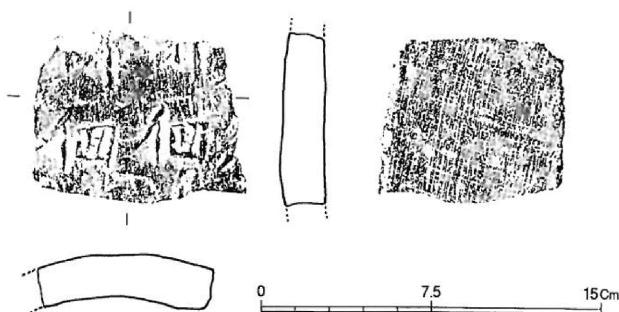
[그림 18] 경주 고선사지 출토품
(국립경주박물관 2000)

13)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大方等大集經』卷第二. “二十九者’有諸衆生常行左道，菩薩見已修集右道，爲令衆生捨左道故。”(<https://kabc.dongguk.edu/2021.7.6.>)

14) 불교 수행 중 길을 따라 움직이는 방법의 하나로. 부처를 중심에 두고 오른쪽으로부터 북쪽을 지나 왼쪽으로 도는 것.

추정할 수 있다.¹⁵⁾ 그러므로 이 명문 내용은 부처에 대한 공경과 경배와 관련한 내용으로 생각된다. 이 명문기와는 경주 황룡곡 표충사지, 경주 고선사지, 경주 성동동 386-6번지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중 황룡곡 표충사지와 고선사지는 지금 보문호 주변에 위치한 점에서 두 사찰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다.

고선사지 출토품(문화재관리국 경주사적관리사무소 1977: 63)은 잔존길이 13.2cm, 잔존너비 12.7cm, 두께 1.8cm이고, 경주시 성동동 성동천주교회 신축부지 내 유적 8호 수혈 출토품(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 2000)은 회흑색 암키와로 크기는 잔존길이 12.1cm, 잔존너비 11.5cm, 두께 2.1cm이다.



[그림 19] 경주 성동동 성동천주교회 유적 8호 출토품(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 2000)

2) 경주 고선사지 출토 ‘大近仁…’명 명문기와



[그림 20] 경주 고선사지 출토품
(국립경주박물관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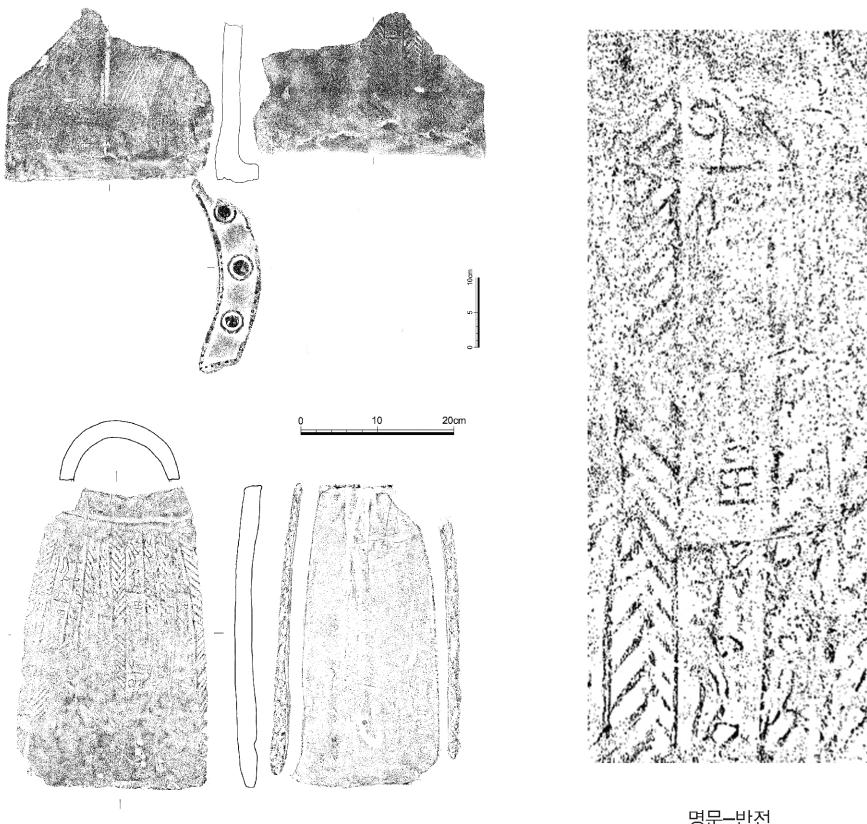
경주 고선사지에서 출토된 회흑색 암키와로 물 손질한 기와 등에 우서로 ‘大近仁…’을 종방향으로 찍었다.(문화재관리국 경주사적관리사무소 1977: 63) 명문 내용은 분명하지 않지만, 近仁의 내용을 살펴보면 “仁을 가까이 하다.” 정도로 해석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경주 고선사지에서 공반된 ‘徘徊右道’와 함께 진언기와의 가능성 있다. 크기는 잔존길이 11.0cm, 잔존너비 7.8cm, 두께 1.4cm이다.

15) 본 논문 심사과정 중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지적받았기에 추가로 제시한다.

3) 여주 원향사지 출토 ‘仰天祈福’ 명문기와

여주 원향사지는 경기도 여주시 첨동면 원부리 산 41-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영월 흥녕사지에 있는 澄曉大師寶印塔碑(944년)의 비문에는 “원향사가 888년 당시 사찰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 해에 왕명에 따라 선나별관으로 영속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이후에 창건되었으며, 고려 중기인 13세기 중엽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었다(기전문화재연구원 · 한국도로공사 2003).



[그림 21] 여주 원향사지 출토품(기전문화재연구원 · 한국도로공사 2003)

명문와는 ‘仰天祈福’, ‘元香寺’, ‘元香寺瓦匠僧順文’, ‘○○佰使’명 등이 출토되었다. 이중 와승과 백사는 당시 기와를 만들었던 장인의 존재를 알려주며, 승려 순문과 또 다른 장인(佰使)가 기와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중창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仰天祈福’ 명문기와는 사역 내 전 지역에서 출토되어 기복 사찰의 성

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¹⁶⁾

‘仰天祈福’ 명문기와는 어골문 안에 18.5×4.7cm 크기의 방곽을 두고 명문을 배치한 모습이며, 의미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복을 기원한다.”라는 뜻으로 당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길 기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6호 건물지(추정 중문지) 출토 일晦문 암막새와 접합된 암키와에는 등에 ‘앙천기복’ 명문을 타날했다. 크기는 길이 28.0cm, 너비 5.5cm, 두께 2.0cm이다. 17호 건물지 출토 수키와는 토수기와로 크기는 길이 39.6cm, 상단너비 8.9cm, 하단너비 16.8cm, 두께 1.0~2.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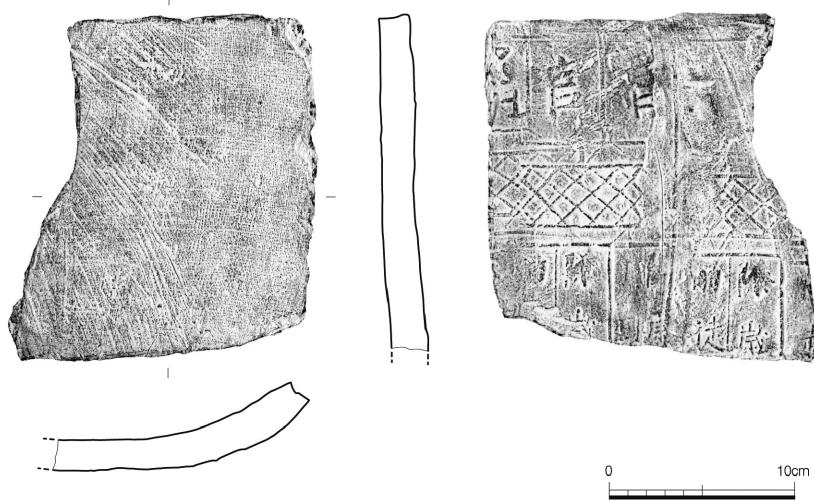
4) 부여 가림성 출토 ‘官-際歲朋徒’ 명문기와

부여 가림성(사적 제4호)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와 장암면 지토리 사이에 위치하며, 백제의 도성인 사비를 지키기 위한 산성으로 과거 성홍산성으로 불렸다. 신라 경덕왕 16년(757) 국가 제사인 소사(小祀)를 가림성에서 지냈다는 내용과 나말려초기에 지방호족 유금필(庾黔弼)과 관련된 내용이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성종 14년(995)에 임주자사를 두었고 고려 충숙왕 2년(1315) 지임주사로 올렸다는 기록 등을 통해서 당시 중요성을 알 수 있다(부여군·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9).

출토유물 중 신라 경문왕 3년(863)인 ‘咸通四年’, ‘官’, ‘化月○(?)…官界心○○(?)水’ 명문와 등과 통일신라~조선시대의 각종 유물이 출토되었다. ‘際歲朋徒’ 명문기와는 장판타날로 상단 방곽 안에 ‘官’자를 두고 아래쪽에 사격자문 띠로 경계를 만들고 그 하단에는 우서로 ‘際歲朋徒’를 새겨진 방곽을 두고 아래쪽에 어골능형문이 있다. 명문 내용 중 ‘官’자가 확인되는 점은 관급기와를 보여주며, 際歲는 ‘세월이 흘러감’을 뜻하는데 벽사의 의미로 추정되며, 朋徒는 한패(무리)를 뜻한다.

‘際歲朋徒’ 명문기와는 2011년 조사 중 고려시대 치 뒷채움 흙 상부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부여군 2013: 23) 회갈색 암키와(1)은 크기가 잔존길이 18.3cm, 잔존 너비 16cm, 두께 1.5cm이다. 회색 암키와(3)은 크기가 잔존길이 18.5cm, 잔존너비 17cm, 두께 1.5cm이다. 가림성 1차 발굴조사 중 탐색트렌치 서측 모래퇴적층에서 출토된 암키와는 크기가 잔존길이 11.2cm, 잔존너비 10.3cm, 두께 1.9

16) 『고려사』 권18 세가 권제18 의종 22년(1168) 3월에 의종이 내린 교서에는 당시 사찰을 裨補寺社, 法席寺院, 新恩寺社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기복사찰은 新恩寺社로 볼 수 있다(기전문화재연구원·한국도로공사 2003: 178).



[그림 22] 부여 가름성 출토품(부여군문화재보호센터 · 부여군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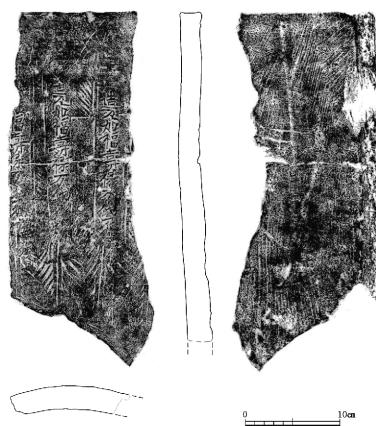
cm이다(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48).

5) 화순 잠정리유적 출토 ‘造瓦加福壽綠万代不亡’ 명문기와

화순 잠정리유적은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47번지 일원이며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말~조선시대 초에 해당되는 건물지가 조사되었다(화순군·동북아지석묘연구원 2012). 유적은 1구역에서 일휘문, 당초문 암막새와 청동불구가 다수 출토되었고, 2~3구역에서는 통일신라

~조선시대 초기 건물지와 각종 유물이 확인되었다.

‘造瓦加福壽綠万代不亡’ 외에도 ‘青’, ‘官’, ‘郎’, ‘陵城官造’, ‘惠□(聖?)’, ‘陵城郡□(瓦?)草弟(第?)第六隊’, ‘陵城郡公(?)’, ‘甲申メ’, ‘□郡’, ‘長庫’, ‘禾’ 등 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陵城郡은 통일신라시대 당시 화순군 능주면 일대를 지칭하는 지방군현명이므로, 본 유적은 이와 관련된 관청유적일 가능성성이



[그림 23] 화순 잠정리유적 출토품
(화순군·동북아지석묘연구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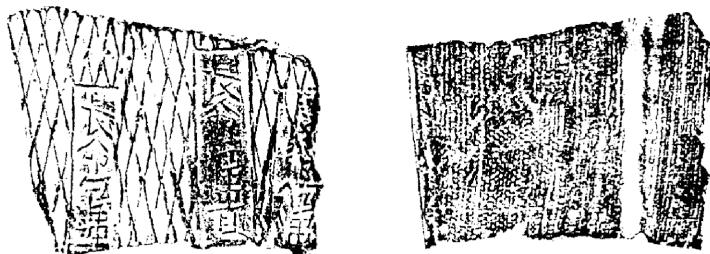
많다.

‘造瓦加福壽綠万代不亡’ 명문기와는 어골문이 타날된 기와로 장방형 곽 안에 우서 종방향으로 명문을 배치했다. 내면에는 사절흔적이 있다. 명문 내용은 “기와를 만들고 만대가 멸망하지 않고 복과 목숨을 계속 이어가기를” 정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찰에 기와를 시주하면서 가족의 복과 수명연장을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지방군현인 능성군 내 사찰에 사용된 진언기와로 추정된다. 크기는 잔존길이 34.7cm, 잔존너비 14.7cm, 두께 2.5cm이다.

6) 담양 나산리 유적 출토 ‘長命富貴’ 명문기와

담양 나산리유적은 도로공사에 따른 시굴조사 중 시굴조사갱 23에서 출토되었다(호남문화재연구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1: 57, No.11). 유적의 성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암키와로 사격자문 안에 장방형 곽을 만들고, 안에 우서로 ‘長命富貴’을 종방향으로 배치했다. 명문 내용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크기는 잔존길이 7.6cm, 잔존너비 11cm, 두께 1.9cm이다.

이상과 같이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진언기와를 살펴보았다. 이들 중 일부는 그 내용이 길상문구를 표현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기와를 만들면서 자신의 서원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진언>으로 판단된다.



[그림 24] 담양 나산리유적 출토품(호남문화재연구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2)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토된 진언기와들을 출토사례 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들 진언기와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찰 안에서 출토된 사례가 대부분이며, 부여 가림성처럼 성곽 안에서 출토된 경우라도 통일신라~고려시대 유구가 확인되었으므로, 당시 사찰이 성 안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진언기와로 추정되는 명문기와를 살펴보면 한 사찰(유적)에서만 확인된 경우(전용 진언기와)와 복수의 여러 사찰(유적)에서 확인된 경우(공용 진언기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필자의 기와분류안 중 전용와와 공용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차순철 2007: 532).

[표 1] 고려시대 진언기와 비교

번호	진언	출토지	기와		비고
			암	수	
1	唵消災進福瓦	경주 나원리사지	1		다수출토
		경주 갑산사지	2		
		경주 동천동 669-2번지 유적(호원사지 사역 내?)	2		
		경주 황성동 402-9번지 유적(호원사지)	3		
		경주 성동동 273-1번지 유적	1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Ⅱ	4		
		경주 현곡면(나원리사지?)	1		
2	徘徊右道	경주 황룡곡 표충사지	1		
		경주 고선사지	1		
		경주 성동동 성동천주교회부지 내 유적	1		
3	大近仁…	경주 고선사지	1		
4	仰天祈福	여주 원향사지	1	1	다수출토
5	官一際歲朋徒	부여 가림성(성흥산성)	3		다수출토
6	造瓦加福壽綠 万代不亡	화순 짐정리유적	2		다수출토
7	長命富貴	담양 나선리유적	1		

진언기와의 제작과 유통과정은 이들 기와를 전용와로 사용한 사찰과 일정한 관계로 연결된 사찰들 사이의 관계를 알려준다. 고려시대에 사찰의 성격을 “우리 조상 때에 개창한 비보사사(裨補寺社)와 예로부터 상례로 의식을 거행하여 온 사사[法席寺院]과 특별히 복을 기원하는 사사[祈恩寺社]로서 만일 퇴락한 개소가 있거든 이를 주관하는 관청에서 즉시 수리할 것이다.”¹⁷⁾라고 구분하고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17) 『고려사』 권18 세가 권제18 의종 22년(1168) 3월조. “一依月令. 一, 崇重佛事. 時當末季, 佛法漸衰. 凡祖宗時, 開創裨補寺社. 及古來定行法席寺院, 與別祈恩寺社, 如有殘弊, 主掌官, 隨卽修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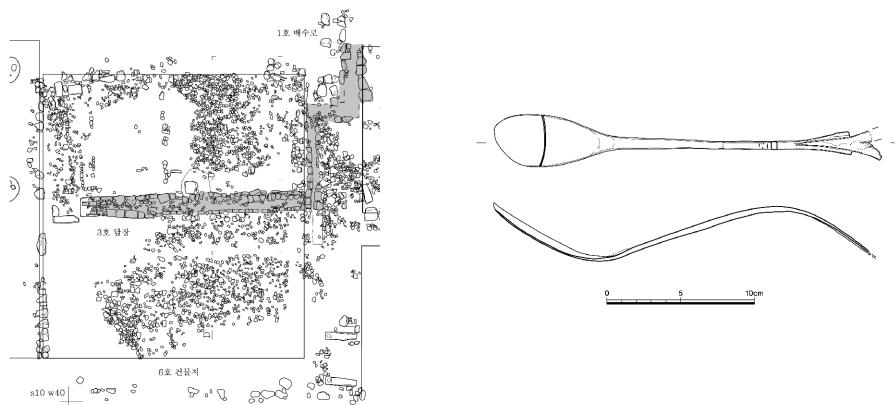
또한 사찰의 위계와 관련해서는 통일신라시대 선종사원의 경우 ‘○○蘭若’, ‘○○禪院’, ‘○○山’ 등으로 기술된 곳은 공인되거나 정식의 사원 규모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원으로 추정된다(한기문 2001: 270). 이러한 모습은 고려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본찰과 부속 암자와 같이 종파, 경제력 등으로 묶인 사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옴소재진복와’, ‘배회우도’ 등과 같이 진언기와가 공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경주 나원리사지와 고선사지와 같이 전용와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들 진언기와의 생산과 수급문제는 당시 지역 내 사찰들 간의 교류모습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주지역의 경우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가 전용와로 사용된 사찰은 현곡면 나원리사지로 추정되며, 종파적으로 연결된 사찰은 안강읍 갑산사지, 황성동 호원사지, 인왕동 왕경유적Ⅱ 내 2방 6호 건물지 등이다. 그리고 ‘배회우도’ 명문기와가 전용와로 사용된 사찰은 경주 고선사지로 추정되며, 종파적으로 관련된 사찰은 황룡곡 표충사지와 경주 성동동 성동천주교회 부지 내 유적으로 추정된다. 이들 진언기와가 사용된 사례가 늘어난다면 이들 사찰의 위상과 성격을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경주 현곡면 나원리사지는 사명을 확인할 수 없지만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존재로 볼 때, 8세기경에 왕실에서 발원한 사찰로 추정되며, 고선사지는 당대 고승인 원효와 관련된 사찰이다. 이들 사찰은 통일신라시대에 중요한 위치를 점한 곳으로 판단되며,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진언기와를 공유하는 모습으로 볼 때, 지역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들 진언기와의 사용과 유통은 고려시대 당시 중심 사찰(본찰)과 주변 사찰과의 관계를 알려주며, 이들 사찰간의 교류와 경제지원과 같은 모습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진언기와와 공반된 일晦문 암·수막새의 사용시기 문제이다. 파주 혜음원지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결과 일晦문 암·수막새는 1120년대에 제작되어 사용되었다(정성권 2003: 189).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옴소재진복와’ 명문기와중 경주 황성동 402-9번지 유적 출토품은 일晦문 수막새와 상감청자가 공반되었고, 인왕동 신라왕경유적의 2방 6호 건물지에서는 일晦문 수막새외 상감청자 그리고 1호 배수로에서는 청동숟가락(243) 1점이 출토되어 유적의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청동숟가락은 유엽형 숟잎에 숟자루는 ‘S’자형으로 크게 흰 모습이며 숟총은 연미형이다(정의도 2014: 205 삽도1). 동형이 출토된 사례를 살펴보면 청주 용암유적 내 금천동

Ⅱ-1유적 127호묘 출토 청동숟가락(Ⅲ-b형)은 청동기와 함께 천성원보(A.D.1023), 지화원보(A.D.1054), 희령원보(A.D.1068), 원풍통보(A.D.1078~1085), 원우통보(A.D.1093) 등이 부장되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토지공사 2000: 249). 따라서 이 분묘의 조성시기는 원우통보를 기준할 때 서기 1093년 이후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12세기 중후반 내외로 편년할 수 있다. 그리고 부여 염창리고분군 V-1호묘 출토 청동숟가락은 청동젓가락과 함께 상감청자 대접, 접시, 팔각접시 등이 공반되으며, 상감청자의 퇴화된 모습으로 볼 때 시기는 14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정의도 2014: 236). 이외도 논산 원북리유적 다지구 내 고려시대 토광묘에서 출토된 청동숟가락 중 동형식(I-a형)의 경우 역시 젓가락과 청동기만 공반된 모습이 보인다(중앙문화재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논산시 2001).



[그림 25] 경주 인왕동유적 2방 1호 배수로와 출토유물(국립경주박물관·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따라서 경주 인왕동 신라왕경유적의 2방 1호 배수로 출토품의 연대는 12세기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방 6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일 휘문 수막새는 파주 혜음원지 출토품과 비교할 때, 일휘문의 형태와 제작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오히려 이보다 늦은 13세기 유물로 추정된다(박은경 1988). 따라서 진언기와가 출토된 유적 중 일휘문 암·수막새가 공반된 사례는 그 사용시기를 12세기 중반이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진언기와는 밀교의 유행과 당시 관련 소재도량의 성행과 함께



[그림 26] 경주 인왕동유적 출토 일휘문 수막새
(국립경주박물관·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고려시대 전기~중기에 사찰 법당 건물에 사용되었으며, 일획문 암·수막새와 상감 청자 등이 공반되는 점으로 볼 때 그 중심연대를 12세기 중반~13세기 초로 판단할 수 있다.

시기	수막새	암막새
12세기 초반		
1120년대		

[그림 27] 파주 혜음원지 출토 일획문 암·수막새 비교

V. 맷음말

고려시대 유행한 밀교와 관련된 여러 불교의례 중 가장 많이 열린 <소재도량>은 당시 내환외우의 상황 속에서 천문의 이상현상을 두렵게 여긴 당시 사람들의 염원이 반영된 불교의례이다. 과거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소재진복’ 명문기와는 “재난을 없애고 복을 비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길상문구를 표현한 기와로 여겨졌지만, 일제 강점기 출토품과 개인 소장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전체 명문 구성이 ‘옴소재진복와’로 밝혀졌다. 그 결과 고려시대 사찰 출토 명문와들 중 <진언기와>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시대 밀교의 성행과 함께 들어온 진언이 기와에 표기된 사례는 일반적으로 범어로 쓴 <육자진언>이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한자로 진언을 표기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당시 사회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또한 ‘옴소재진복와’의 내용은 당시 왕실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소재도량>이 지방에까지 확산되어 신앙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고려시대 사찰출토 명문기와 중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진언기와로 추정되는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들 기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일반 길상문구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사찰 안에서 이루어진 도량운용과 관련된 <진언기와>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투고일 2021. 8. 12 | 심사완료일 2021. 9. 24 | 게재확정일 2021. 10. 6

참고문헌

-國文-

- 고정용(이진영 번역), 2012,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고려 범자기와」, 『고려 기와와 전돌-김대환 선생 기증 유물 포함』고고·미술분야 제3회 특별전, 단국대학교 석유선기념박물관.
- 국립경주박물관, 2000, 『신라와전』.
- 국립경주박물관·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Ⅱ-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2차) 발굴 조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
-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천문화재연구원·한국도로공사, 2003, 『원향사』.
- 김기문, 2006, 『경주풍물지리지』, 경주시·경주문화원.
- 김동현·김주태·우병익·정재훈·허만하·신영훈 편저, 1976, 『신라의 기와』한국건축사대계Ⅴ 건축과 문양(상), 동산문화사.
- 김수연, 2013, 「소재도량(消災道場)을 통해 본 고려시대의 천문기양사상(天文祈禳思想)」, 『한국사상사학』45, 한국사상사학회.
- 김종명, 2001,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 문학과지성사.
- 대한불교진각종 밀교문화총람사업단, 2018, 『한국의 육자진언 음마니반메훔』, 진각종 해인행.
- 문화재관리국 경주사적관리사무소, 1977, 『고선사지 발굴조사보고서』.
- 박은경, 1988, 「고려 와당문양의 편년연구」, 『고고역사학지』제4집, 동아대학교박물관.
- 박홍국, 1980, 「경주지방에서 출토된 문자명와」, 『전국대학생학술연구발표논문집(인문분야)』5, 고려대학교.
- _____. 1998a,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과 남산 칠불암마애불의 조성시기-최근 수습한 명문와를 중심으로-」, 『과기고고연구』제4호, 아주대학교 박물관.
- _____. 1998b, 『한국의 전탑연구』, 학연문화사.
-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부여군, 2013, 『부여 성홍산성 성곽복원정비 사업(발굴) 성홍산성Ⅱ』.
- 부여군·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부여 가림성 I-동성벽 노출조사-』.
-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19, 『경주 동부사적지대 석교지 복원공사부지 내 유적 문화재 1차 발굴조사 보고서』.
-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7, 『왕경유적Ⅰ-경주시 성동동 273-1·298유적-』.
- 엄기표, 2020, 「고려~조선시대 범자명 기와의 제작과 미술사적 의의」, 『역사와 담론』71집, 호서사학회.
- 영남문화재연구원·한국통신, 1999, 『경주전화국 신축예정지 경주 성동동 386-6번지 생활유적』.
- 유환성, 2010, 「경주 출토 나말려초 사찰명 평기와의 변천과정」, 『신라사학보』19호, 신라사학회.
- 정성권, 2003, 「혜음원지 출토 막새기와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제19호, 한국문화사학회.
- 정의도, 2014, 『한국고대 순가락 연구』, 경인문화사.
- 조성금, 2016, 「배제클릭석굴 18굴 <消除災難經變相圖> 연구」, 『미술사학연구』제290·291호, 한국미술사학회.
- 중앙문화재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논산시, 2001, 『논산 지방산업단지부지내 논산 원북리유적』.
- 진홍섭, 1975, 『경주의 고적』, 열화당.
- 차순철, 2007, 「경주지역 사원출토 평와의 수급관계 고찰-전용와·공용와·교류와를 中心으로-」, 『불교미술 사학』제5집,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경주 황성동 402-9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Ⅸ-경북4-』.
- _____. 2015, 「경주 갑산리 7411-4번지 외 1필지 유적·경주 갑산리 711-5번지 외 5필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Ⅷ-경북1-』.

한국문화재보호재단·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 2000.『경주시 성동동 성동천주교회 신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토지공사, 2000.『청주 용암유적(Ⅱ)』.
한국문화재보호재단·탑스리빙월드(주), 2010.『경주 동천동 696-2번지 유적 - 공동주택 신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사전연구사, 1998.『종교학대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기문, 2001.「신라말 선종 사원의 형성과 구조」,『한국선학』2권, 한국선학회.
호남문화재연구원·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1.『담양 나산리유적 시굴조사보고』,『담양-대전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간 내 담양 풍수리 유적』.
화순군·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2.『화순 농어촌 뉴타운 조성부지 내 화순 삼정리유적』.

-日文-

高正龍, 1999,「韓國における滴水瓦の成立時期-黃州・成仏寺瓦の紹介をかねて検討」,『朝鮮古代研究』第1号,
朝鮮古代研究刊行會.
高正龍, 2012,「韓國江華島禪源寺跡の梵字瓦」,『東アジア瓦研究』第2号, 東アジア瓦研究會.
松井忠春·高正龍·菱田哲郎他, 1994,「韓國慶州地域寺院所用瓦の研究-岬山寺所用瓦の考察-」,『青丘學術論
集』4,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朝鮮總督府, 1917,『朝鮮古蹟圖譜』五, 青雲堂.

Review on Mantra Roof-Tile in Goryeo Dynasty

Cha, Soon-Chul(Director, Seorabeo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mong the inscribed roof-tiles of the Goryeo Dynasty excavated in Gyeongju region, the ‘Om Sojae Jinbok Tile (唵消災進福瓦)’ are found in Inwang-dong near Wolseong Fortress of Gyeongju, Seongdong-dong near Gyeongju Eupseong Fortress, Howonsa Temple site in Hwangseong-dong and Dongcheon-dong, a temple site in Nawon-ri, Hyeongok-myeonm and Gapsansa Temple site in Angang-eup.

In the past, this inscribed tile was known as an artifact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However, excavation surveys proved that it was used in temples during the mid Goryeo Dynasty. The examination of the materials introduced in the past and the details of the inscribed tiles excavated recently, discovered new letters, one before and the other after Sojae Jinbok (消災進福), and revealed the entire phrase, ‘Om Sojae Jinbok Wa (唵消災進福瓦)’. The phrase is from the words of Buddha and can be read as “Om, roof-tile that eradicates disaster and brings luck.” The Mantra roof-tile is presumed to have been produced between late 12th century and early 13th century, which is the mid Goryeo Dynasty. It has some association with a Buddhist rite called ‘Sojae Doryang (消災道場),’ which was prevalent at the time and intended to prevent disasters in the temple. In summary, this inscribed tile is an expression of the intent to prevent harms with Buddha’s power by inscribing the words of Buddha on the roof-tile. Also, it is deemed that

an association could be found between Gapsansa Temple, the temple in Nawon-ri, Howonsa Temple, and the temples in Inwang-dong and Seongdong-dong in downtown Gyeongju area based on the fact that this inscribed roof-tile was shared among the temples in downtown Gyeongju and its peripheral areas. The examination of inscribed tiles excavated domestic sites, the ones with the words of Buddha in particular, such roof-tiles were found in various temples inside and also outside Gyeongju. All this indicates that people prayed for the prevention of harms through 'Sojae Doryang' and made roof-tiles inscribed with the words of Buddha to depend on Buddha's power.

Key words : Goryeo Dynasty, Inscribed Roof-Tile, Words of Buddha(Mantra), Temple. * Om Sojae Jinbok Tile (唵消災進福瓦) - Om, tile that eradicates disaster and brings luck.